

##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지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갈등관리 및 금강살리기 관계관,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및 충남포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중재·조정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으며, 道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예산확보 및 조례 제정을 포함, 강력한 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 道,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의 포럼의 중요성 인식 및 협조 요청,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포럼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 통일성 있게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원전 안전성”과 “주민수용성”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한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 센터 공식방문 및 워크숍 참여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과 이준건 갈등중재위원장 등은 지난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감시기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각 주제강연 실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병학 박사는 “지역의 갈등사례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그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갈등과 해결사례, 충남포럼의 운영사례, 경주 방폐장 유치사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갈등의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원전시설의 이해와 발전적 접근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주시의 주요산업인 원자력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충남포럼과 민간환경감시센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재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입지갈등 관련 좌담회 개최

충남포럼은 지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암면사무소에서 충남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전문가, 도 관계관, 아산시 관계관, 예산군 관계관,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문제와 관련한 제1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아산시와 예산군 간 잠복된 갈등분쟁을 본 포럼 주최의 좌담회 개최를 통하여 대화의 불씨를 트고, 소통기회를 마련함에 따라 갈등 완화의 길을 모색하고, 특히 아산시와 예산군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충남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시·군간 갈등관련 현장갈등예방사업으로서 포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장의 특성과 제약조건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각 시·군의 주민대표 및 의회위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아산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충남포럼에서는 현장지향적 갈등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 조정사제도 도입」 관련 자문회의 개최



충남포럼은 지난 9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문회의에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한국행정학회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충남포럼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과 법령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충청남도의 조례제정 방향 및 갈등조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운영지원 활성화 및 권역별 포럼 및 시·군 단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갈등관리 및 조정의 전문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 도입은 향후 전문화, 체계화된 갈등관리 및 조정영역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